

종교·복지

단신

송광사 '삼월불사' 봉행
12~13일 대웅전·국사전서

송광사(주지 영조 스님)는 12~13일 이틀간 '삼월불사'를 봉행한다. 삼월불사는 수계산림과 송광사를 세운 지눌 스님의 종재 등 두 가지 행사로 진행된다. 불자들이 보살계를 받는 수계산림은 12~13일 대웅전에서 행해지며, 제797주기 불일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종재는 13일 국사전에서 봉행된다. 보살계 수계 동참금은 3만원이며 영가천도 동참금은 1위 당 1만 원이다. 문의 061-755-0107~9.

5·18민중항쟁 추모법회

18일 오후 7시 원각사

광주·전남 24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5·18민중항쟁 불교추모사업회'(사무처장 양행선)는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원각사에서 '5·18민중항쟁 제27주년 추모법회'를 갖는다. 법회에서는 5·18 관련 영상물 상영과 목포대 율동래의 공연을 비롯, 지역 불교 인사들의 추모사 및 추모시 낭독, 전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의 강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62-223-3168.

6월항쟁 20돌 기념미사

18일 서울 명동성당서

6월 민주항쟁 2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 8명)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주항쟁 20주년 기념미사'를 봉행한다. 5·18 민주화운동 27주년도 함께 기념하는 자리다. 1987년 5월 18일, 고(故) 김승훈 신부는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6월 민주항쟁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으며, 당시 명동성당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보루이자 성역으로 여겨졌다. 미사는 천주교 인천교구 김병상 신부의 집전으로 진행된다. 문의 02-3709-7507.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해박해 진원지 곡성성당 성지된다

(丁亥迫害)



1827년 천주교도 16명 순교
역사관 개관·웅기센터 개발

1827년 2월 어느 날, 곡성군 오곡면 승법리의 웅기촌에 살던 한 천주교도는 동네 주막에서 주인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은 당시 조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던 천주교의 신자들을 관아에 고발한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옥에 갇히고, 16명의 순교자를 낸 정해박해(丁亥迫害·1827년)의 발단이 됐다. 신유박해(辛酉迫害·1801년)와 을해박해(乙亥迫害·1815년)를 피해 전라도 지방에 터를 잡았던 천주교도들은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큰 시련을 맞게 된 것이다. 곡성의 조그만 마을에서 촉발된 정해박해는 경상도와 충청도는 물론 수도권에까지 퍼졌으며, 이 박해로 인해 전라도 지방의 천주교는 궤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해박해 180주년을 맞아 천주교 곡성 본당의 성지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해박해를 알리는 역사관을 만들고, 180년 전 천주교도들의 보금자리이자 집회 장소였던 웅기촌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곡성군도 가세해 곡성성당 성지화 작업에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지금의 곡성성당 자리는 정해박해 당시 가톨릭 신자들을 가뒀던 감옥이 있었던 곳이다. 곡성성당 내에는 18평 규모의 '옥터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이 곳에는 정해박해와 곡성성당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서적, 유물,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성지화 작업과 함께 웅기촌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니어저 제작 등이 이뤄지며, 광주대교구 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웅기 조각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웅기촌은 당시 공동체 생활 방식을 택했던 천주교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각종 성물과 교회 서적을 감추기에 적합했으며, 비밀리에 집회를 가졌던 곳이다. 로마의 가톨릭 박해 시대로 치자면 가톨릭 신자들의 지하 묘지이자 비밀 장소였던 '카타콤'이었던 셈이다. 승법리 웅기촌 터에는 기념비석과 안내문, 표지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가톨릭 신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성 본당 윤민호(44) 주임 신부는 "이번 기념사업은 180년 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정해박해와 그 진원지가 곡성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60년 후 새로운 정해년을 준비하고 당시 곡성 웅기촌에 살던 신앙인들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본받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곡성성당과 곡성군민회관에서는 정해박해의 의미를 기리고 미래를 점치는 학술제와 무용제가 열렸다. 이에 앞선 9일에는 '정해박해 180주년 기념행사' 개회식과 음악제가 개최됐다. 기념행사는 11~12일 음식바자회가 포함된 '사람의 나눔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승법리 가마터



▼곡성성당 전경

종교칼럼



오덕호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옛날에 한 사람이 급한 길을 가다가 어느 밭에 이르렀다. 가만히 보니 밭에 갈을 따라 가면 멀리 돌지만 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곡식을 헤치며 밭을 질러갔다.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왔는데 역시 밭을 돌아가려고 하니가 밭에서 불편했다. 그런데 밭에 누가 지나간 흔적이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나갔다면 나라도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밭으로 지나갔다. 이러한 동안 점점 밭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소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제는 곡식이 많이 생겼고 밭에는 행하니 길이 뚫렸다. 그 후에 한 선비가 그곳에 와서 보니 밭에 사람 다닌 길이 있기는 한데 아무런 밭도 진짜 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갈 길이 바쁘지만 밭을 지나가지 않고 길을 따라 밭 돌아갔다. 뒤에서 오던 사람이 선비가 밭을 돌아가는 것을 보며 말했다. "저런 한심한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는데 그냥 밭으로 가지 뭐 때문에 돌아가?" 이렇게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며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몇 사람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힘없는 이웃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손해를 입게 된다. 생각해보라. 사람마다 자기 편한 대로 밭을 밟고 다닌다면 결국 내 밭도 망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마치 모든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길이 막히버리는 것과 같다. 남들이 밭을 밟을 허락을 하려는 사람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허무는 사람이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모두 함께 망하는 최고의 어리석음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불법과 편법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 평범한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부터 고위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이르기까지 너무 염려스럽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웃을 존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법과 편법을 버리고 정도를 걸음으로써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서교회 목사>

“배움은 삶의 활력”

금호평생교육관 장수대학 인기

'노년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금호평생교육관(관장 김세민)이 운영하고 있는 장수대학(사진)이 고령화 사회의 평생 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금호평생교육관 장수대학은 매년 3월 개강, 일주일에 1회씩 총 35회 운영된다. 특히 올해 11기째를 맞아 입학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나이 순으로 100명을 마감했다. 금호평생교육관 고령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 건강을 챙기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취미와 오락 관련 강좌도 마련돼 있다. 또 유익한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우리 역사현장도 방문하고 입학학생들간 유대도 강화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금호평생교육관에서는 장수대학 외에도 퇴직자들의 봉사단체인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이 활동중이고 34개의 다양한 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김세민 관장은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 소속감이 생기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자신감때문에 장수대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도움, 신학자들과 '성서논쟁'

한국교회와 성서' 공개토론
오늘 김신대 백주년기념관

성경해석을 둘러싸고 기독교계와 논쟁을 벌여온 도움 김용욱 세명대 석좌교수가 기독교 신학자들과 성서 논쟁을 벌인다. 한국조직신학회(회장 이경배)는 "11일 오후 서울 남동문 갈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중강당에서 김교수와 신학자들을 초청해 '한국교회와 성서'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 교수가 30분 가량 자

신의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를 발표 한 뒤 신학자들이 김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신학자는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김광식 전 연세대 교수, 김준우 김신대 교수, 김근규 성공회대 교수 등이다. 한국조직신학회 대외협력부장은 "이오갑 그리스도대 조직신학 교수의 '전문적 신학자들이 볼 때 김 교수의 견해는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부동산컨설팅' (Daein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011-625-0510 and various services liste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새하늘과새땅공인중개사' (Saeheu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430-8118 and services for land and hou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부부동산컨설팅' (Geombu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261-8949 and services for land and hou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iplus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62-973-9174 and services for land and hou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62-371-1900 and services for land and hou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with contact info 222-8446 and a list of auctioned properties.